

##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 욱 배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하나로서 선거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가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미시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는 그 특성상 자발적 투표와 더불어 동원투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곧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 분석 결과, 연령 변수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보다 지방선거에서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거주지 규모 변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력이 없지만, 유독 지방선거에서만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에서는 필요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정당이나 이념과 같은 정보요약도구의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분석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정당일체감 변수의 영향력은 선거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하였는데, 이는 필요정보의 양에 상관없이 정당이라는 정보요약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념 변수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이 변수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그 영향력이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치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이념이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는 반면,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간 이념 차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선거, 투표참여, 투표율, 선거유형,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원투표, 정보요약도구, 정당, 정치이념

## I. 서 론

한국의 투표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미시적 수준에서 유권자 개인의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연령, 교육 수준, 소득 등 각종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정치 효능감, 정당선호도, 정치적 관심 등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 보다 거시적인 체계 수준의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편이다. 물론 선거구 특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황아란(1996)과 김영태(2000)의 연구, 그리고 1인 2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투표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김영태(2002)의 분석 등 거시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미시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작다.<sup>1)</sup>

이같은 거시적 요인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부분적으로 방법론적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직면하는 어려움은 분석의 수준의 상승에 따른 사례수의 감소이다. 개인 수준의 분석이 통상 몇 백, 몇 천의 사례를 갖고 있음에 비해, 거시적 수준의 분석의 경우 사례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아니고 한 국가만을 연구하는 경우, 그리고 체계적인 시계열 자료가 축적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례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나 거시적 요인의 분석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어려움은 그 영향력의 복잡성에 있다. 미시적 분석의 경우 개인적 요인에 따른 개인적 행동(투표참여 여부) 변화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영향력을 분석한다. 그러나 거시적 분석에서 거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보다 복잡한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유형은 거시적 요인이 대부분 개인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개인들의 변화가 합쳐져 거시적인 결과(투표율의 증감)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앞에서 인용한 거시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다.

1) 비록 투표참여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현우(2004)는 민주화라는 거시적 요인이 시민의 정치참여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두 번째 보다 복잡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의 유형은 거시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수준 요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의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이 있다고 할 때, 이 요인은 한국 유권자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투표율의 제고 혹은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교육과 투표참여라는 두 미시적 요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교육과 투표참여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새로운 선거제도에서는 두 요인간 관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력 분석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의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의 유형이라는 거시적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선거의 특성이 거시적 수준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전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직접적 영향력)과 미시적 수준에서 지방선거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력(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2장에서는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투표율 저하 추세의 원인, 그리고 선거의 유형간 투표율의 차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3장에서는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선거가 갖는 특성을 찾아보고, 이러한 특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초점은 지방선거에서의 미시적 관계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미시적 관계와의 비교에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

2) 물론 재보궐선거도 선거의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 II. 최근 선거 투표율 개괄

지방선거가 부활된 1995년 이래 지난 2002년까지 총3회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간의 투표율 변화 추이를 보면(표 1 참조),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68.5%의 투표율을 기록한 뒤 그 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52.7%로 무려 15%포인트 정도 감소하였으며,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48.9%로 또 다시 약 4%포인트 감소하였다.

사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 추세는 비단 지방선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1987년 13대 선거에서 89.2%를 기록한 이후, 1992년 14대에서 81.9%, 1997년 15대에서 80.7%,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02년 16대 선거에서는 70.8%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75.8%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래,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 1996년 15대 총선에서 63.9%,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5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가장 최근의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60.6%로 다시 약간 상승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반전이 장기적인 추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

표 1. 민주화 이후 주요 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연 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1987		89.2%	
1988			75.8%
1992		81.9%	71.9%
1995	65.8%		
1996			63.9%
1997		80.7%	
1998	52.7%		
2000			57.2%
2002	48.9%	70.8%	
2004			60.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박명호(2005)

시적인 현상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 추세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가장 커다란 원인은 근대화 및 민주화로 인하여 보다 자율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널리 퍼졌던 소위 “동원 투표”(mobilized voting)의 감소이다(Kim 1980). 사실 권위주의 시절 한국의 투표율은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는데, 것처럼 높은 투표율에 크게 기여했던 동원 투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적인 정치문화의 형성에 따라 자발적인 투표참여는 오히려 증가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정치문화에서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할 경우 투표참여 외에 다른 유형의 참여에 보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up>3)</sup>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보다 자율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유권자의 경우 투표참여에서는 기성세대보다 부진한 반면, 거리 시위, 서명 운동, 노사모와 같은 자발적 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등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효과가 커다란 참여 유형에서는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결국 자율적인 정치문화의 형성으로 동원투표에 비해 자발적 투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자발적 투표의 절대적 증가율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투표의 증가율보다 동원투표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선거의 유형에 따라 투표율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셋을 두고 볼 때, 대

3) 실제로 우리보다 더 자율적인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참여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다른 유형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투표참여와 다른 유형의 정치참여는 그 비용면이나 효과면에서 매우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Verba 외(1995)를 참조하라.

4)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권자층이 최근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욱(2005)을 참조하라.

통령선거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각 선거 유형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세 선거에서의 평균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77.8%,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60.6%,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 56.7%를 기록하고 있다(박명호 2005).

이러한 선거 유형간 투표율의 차이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미시적 수준에서 투표참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이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가 덜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도 당연하다. 유권자의 높은 관심을 끄는 선거일수록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 경기가 동네 초등학교간 친선 야구 경기보다 많은 관중을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선거유형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선거 관심도의 차이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단순히 전체적인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관계(즉 개인적 특성과 개인적 투표참여)에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어떠한 특성들이 개인의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I. 지방선거의 특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 1. 투표참여 관련 지방선거의 주요 특성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형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아

직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한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있어서 지방선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두 번째 투표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선거가 갖는 특징은 투표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4개의 별도의 선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유권자가 정보에 바탕한(informed) 투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게다가 기초 단위의 선거와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언론의 관심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셋째 선거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대통령선거와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광역단체장 선거나 일부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의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에서보다 크기가 작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 2. 투표율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이러한 지방선거의 특성이 투표율 전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다. 한 가지만 부언한다면, 적어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다른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치적 의미도 상당하고 언론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선거관심도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화, 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관심도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5) 광역단체장 선거의 관심도만 증가하고 다른 3개 지방선거의 관심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네 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하나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 관심이 없는 다른 선거에 대한 투표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럴 경우 유권자의 선호가 왜곡될 가능성은

둘째,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 결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투표의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즉 투표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표 비용의 상승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전체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권자의 실제 인지과정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상승의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투표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요약도구(information short-cut)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niderman 외 1991).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할 때 지방선거가 더 많은 투표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차이의 크기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인 상대적으로 작은 선거구 크기는 개인의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운스(Downs 1957)의 투표참여 모델에서 선거구 크기는 곧 자신의 한 표가 투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p)을 의미한다.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p는 증가하며, 이는 곧 투표참여로부터 기대하는 편익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작은 선거구는 투표참여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실제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단체장선거나 일부 기초단체장선거는 선거구의 크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선거구의 크기가 작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도 p의 증가가 갖는 효과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의 p는 워낙 작기 때문에(통상적으로  $p < 0.0001$ ), 그것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그것이 투표의 편익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선거의 세 가지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선거관심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양 증대에 따른 비

---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이현우 1999).



용 상승도 어느 정도 투표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작은 선거구 크기는 반대로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앞의 두 가지 특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지방선거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미시적 관계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지방선거의 특성은 투표율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적 요인과 투표참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과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투표참여자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먼저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관심도와 관련하여, 지방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한 자,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애착을 느끼는 자일수록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환원하자면, 대도시 유권자에 비해 농촌 지역 유권자의 경우, 그리고 젊은 유권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지방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서 지방선거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많은 필요 정보의 양과 관련하여, 각종 후보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일수록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정보요약도구를 활용하여 나름대로 투표결정을 할 수 있는 유권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일체감이 높거나 비교적 분명한 이념성향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당과 이념이라는 정보요약도구를 활용하여 커다란 비용없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따라서 정당일체감이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높을수록, 지방선거

6)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정보요약도구는 지역주의이다(김종립 외 1997) 즉 후보의 출신지역이나 정당의 지역기반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후보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투표할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유권자는 자발적인 의사 없이 외부의 동원압력에 의해 투표하는 유권자이다. 이들 소위 동원투표자의 경우 투표의 주요 목적이 외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나 정책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농촌 거주자, 그리고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러한 동원압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김옥 1999).

셋째, 상대적으로 작은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하여, 이는 곧 지방선거에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압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원압력에 많이 노출되고 또한 그러한 압력에 민감한 유권자일수록 지방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를 인구통계학적으로 환원하면,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농촌 거주자, 그리고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는 나이가 많은 유권자일수록, 농촌 거주자일수록, 정당일체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이념성향이 분명한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중에서 거주지 규모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변수(연령, 정당일체감, 이념성향의 강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투표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유형의 선거와는 달리 자발적 투표에 비해 동원투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점차 자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권위주의 시절 농촌지역의 전통적 유권자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던 동원투표가 점차 줄고 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최근의 선거에서는 소위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도 사라지고 있다(김옥 1999; 강경태 2003).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동원투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투표

---

경우 후보의 출신지역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당의 지역기반은 이미 정당일체감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는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자발적 투표가 비교적 어려워진다. 게다가 선거구의 크기가 작아 개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환경에서는 동원투표의 매력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선거와는 달리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동원투표의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앞에서 논의되었던 지방선거에서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 네 개(연령, 거주지 규모, 정당일체감, 이념성향의 강도) 중 연령과 거주지 규모는 동원투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동원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두 요인은 지방선거의 세 가지 특성 모두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특히 중요한 미시적 요인은 연령, 거주지 규모, 정당일체감, 이념성향의 강도 등이다. 이 중에서 동원투표와 관련된 연령과 거주지 규모 변수는 다른 두 변수에 비해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연령 변수는 자발적 투표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비단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단지 지방선거에서 그 영향력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거주지 규모 변수는 자발적 투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당일체감과 이념성향 변수는 다른 유형의 선거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특히 지방선거에서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IV. 경험적 분석

### 1. 자료와 방법

이번 장에서는 지방선거의 간접적 영향력과 관련된 앞에서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세 개의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2002년 2회 지방선거,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그리

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조사자료이다. 세 개 자료 모두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KSDC)에서 제공받았으며, 참고로 세 개 조사 모두 각각의 선거 직후 약 1,500명의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초점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참여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거에서 미시적 수준에서의 투표참여 모형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단 세 가지 유형의 선거에 동일한 투표참여 모델을 적용했는데, 물론 이 모델의 종속변수는 투표참여 여부이다. 독립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네 가지 미시적 변수(연령, 거주지 규모, 정당일체감, 이념성향의 강도) 외에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수로서 추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투표참여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포함된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선거관심도라는 변수를 제외한 이유이다. 선거관심도는 앞에서의 이론적 논의에서 대두되었던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투표참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그간의 경험적 연구를 보아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를 모델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설명하려는 현상인 투표참여와 개념상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너무 근접해 있어 동어반복적인(tautological) 느낌까지 줄 정도이다. 선거에 관심있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지만,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흥미가 없다는 것이다. 누가 야구 경기장을 찾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야구에 관심있는 사람이 찾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좋은 설명은 아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흥미가 없다 하더라도 통제를 위해 모델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이 변수를 투표 참여의 중요변수로 한 연구도 존재한다(강경태 2003). 그러나 이 변수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흥미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 여부를 동일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기에는 내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측정의 오류가 다른 설문항에 비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sup>7)</sup>

주요 변수의 측정은 대부분 단순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념성향의 강도와 정당일체감의 측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이념성향의 강도(혹은 선명도)는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진보와 상관없이 단순히 그 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도, 약간 보수(혹은 진보), 그리고 매우 보수(혹은 진보), 이렇게 세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정당일체감의 측정에 있어서는 강도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하는 정당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 강도를 묻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몇몇 변수의 경우에도(거주지 규모, 학력 등) 조사마다 분류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었지만,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 코딩하여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다중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참여와 기권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인 선형(linear) 회귀분석보다는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두 기법을 적용해 본 결과, 양자간 차이는 크지 않다. 여기서는 해석이 보다 용이한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

## 2. 분석 결과 및 해석

표 2, 표 3, 그리고 표 4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 2002년 대통령선거,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세 모형 중 지방선거의 경우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R^2 = 0.151$ ), 그 다음이 국회의원선거( $R^2 = .095$ ), 그리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R^2 = .045$ ) 설명력이 가장 떨어진다. 이는 이 모형이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 
- 7)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를 활용하고 안하고는 궁극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는 이러한 변수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굳이 비슷한 종류의 변수를 사용한다면, 선거관심도보다는 정치관심도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적어도 개념적으로 볼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은 투표참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선거관심도보다 문제가 적기 때문이다.

표 2. 투표참여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2002년 지방선거)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베타)	t-value	유의 확률
상수	-.187	.116		-1.607	.108
성별 (1: 남성, 2: 여성)	.010	.025	.011	.397	.691
연령	.012	.001	.358	10.747	.000
교육수준	.051	.022	.079	2.291	.022
거주지 규모 (1: 대도시, 3: 군지역)	.071	.016	.123	4.576	.000
선호정당 존재 여부 (1: 없다, 2: 있다)	.160	.027	.157	5.911	.000
이념 강도 (1: 약함, 3: 강함)	.030	.021	.038	1.427	.154

$R^2 = .151$ , 수정된  $R^2 = .146$ ,  $F = 36.028$ (유의 확률 .000)

표 3. 투표참여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2002년 대통령선거)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베타)	t-value	유의 확률
상수	.588	.069		8.506	.000
성별 (1: 남성, 2: 여성)	-.016	.017	-.025	-.941	.347
연령	.003	.001	.149	4.793	.000
교육수준	.020	.013	.049	1.541	.124
거주지 규모 (1: 대도시, 3: 군지역)	.014	.012	.028	1.106	.269
선호정당 존재 여부 (1: 없다, 2: 있다)	.079	.017	.121	4.712	.000
이념 강도 (1: 약함, 3: 강함)	.041	.014	.079	3.046	.002

$R^2 = .045$ , 수정된  $R^2 = .041$ ,  $F = 11.544$ (유의 확률 .000)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낮은 편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목적은 미시적 수준에서 투표참여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유형이

표 4. 투표참여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2004년 국회의원선거)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베타)	t-value	유의 확률
상수	.404	.094		4.295	.000
성별 (1: 남성, 2: 여성)	-.038	.024	-.048	-1.595	.111
연령	.006	.001	.205	6.286	.000
교육수준	.030	.019	.051	1.556	.120
거주지 규모 (1: 대도시, 3: 군지역)	.002	.019	.003	.111	.912
선호정당 존재 여부 (1: 없다, 2: 있다)	.146	.025	.181	5.934	.000
이념 강도 (1: 약함, 3: 강함)	.042	.015	.083	2.766	.006

$R^2 = .095$ , 수정된  $R^2 = .089$ ,  $F = 17.887$ (유의확률 .000)

라는 거시적 요인이 미시적 요인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설명력의 높고 낮음보다는 선거의 유형별로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모형에 포함된 6개 독립변수 중 통제의 목적으로 포함된 성별과 교육수준을 제외하면, 네 개의 주요 변수가 남는다. 그 중 먼저 연령 변수는 세 선거 모두에서 일관되고 아주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예상한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변수는 자발적 참여이든 동원된 참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방향으로(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높은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 연령의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계수를 비교해 볼 때 지방선거에서 0.12로 가장 크며, 국회의원선거에서 0.06,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낮은 0.03을 기록하고 있다.<sup>8)</sup> 이처럼 자발적 투표보다는 동원투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거

8) 이러한 패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를 분석을 위하여 선거직후 실시하는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과 투표참여 양변인 분석만 할 경우, 20대와 40대 이상과의 투표율 차이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34.1%포인트(65.3~31.2%)로 가장 크고,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25.2%포인트(69.9~44.7%), 그리고

에서 연령의 영향력이 증대한다는 것은 비록 연령은 자발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 모두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 규모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예상한 대로이다. 이 변수는 상대적으로 동원투표가 덜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표참여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이론적 예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p < 0.001$ ). 영향력의 방향도 예상대로 대도시보다는 농촌지역 거주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나지 않던 동원투표와 도저촌고 현상이 지방선거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강경태 2003).

선호정당 존재 여부 변수의 경우도 연령과 마찬가지로 세 선거 모두에서 일관되고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선호정당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 변수와는 달리, 선거 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는 정당이라는 정보요약도구(information short-cut)의 사용은 필요정보의 양이 많은 지방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필요정보의 양이 적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됨을 의미한다.

이념성향의 강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필요정보의 양이 많은 지방선거에서 이념이라는 정보요약도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변수는 지방선거에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히려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이념 변수의 유의확률이 0.154임에 반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각기 0.002와 0.006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는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선거 유형간의 특성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치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이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는 반면,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간 이념 차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념이라는 정보요약도구는 지방선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선

---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22.4%포인트(78.9~56.5%)를 기록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의 하나로서 선거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지방선거가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성은 1) 선거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2) 투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의 많고, 3) 선거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성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참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특성이 지방선거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영향력은 전체 투표율의 상대적 저하이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낮은 선거 관심도이다. 게다가 투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다는 특성도 투표참여를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선거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은 오히려 투표율을 높여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앞의 두 요인에 비해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에 비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방선거의 특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은 보다 복잡하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자발적 투표와 더불어 동원투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진다는 점인데, 이는 곧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령 변수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거주지 규모 변수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영향력이 없지만, 유독 지방선거에서만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이념과 같은 정보요약도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당일체감이 있는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분명한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당일체감 변수는 예상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영향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영향력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필요 정보의 양에 상관없이 정당이라는 정보요약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념 변수의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다른 유형의 선거보다 지방선거에서 이 변수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변수는 지방선거에서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히려 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결과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선거 유형간의 특성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치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이념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상하는 반면, 생활정치를 강조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 간 이념 차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연계성,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와의 연관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가 그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향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지방적 특성 없이 단순히 중앙정치의 쟁점을 그대로 반영한다던가, 혹은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거의 유형마다 그 특성이 다르며 그에 따라 투표참여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중앙정치를 일정 부분 반영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지방정치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참여자의 특성과 대통령 선거 참여자의 특성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 결과를 여과없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연결 짓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물을 볼 때 획기적인 발전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돌파구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의 도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분석의 수준의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거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투표참여의 연구에 있어서 거시적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갖는 정치적, 정책적 함의 때문만은 아니다.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보다 완전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합리적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개인적 특성을 가진 유권자가 투표하는가 자체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권자의 개인적 특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무엇을 중시하여) 유권자가 투표 결정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요인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들이 참여하나?” 『한국정치학회보』 37집 1호, 91-111.
-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김광수. 1986. “투표기권자의 사회인구론적 특성과 그 불참 사유에 대한 연구: 누가? 왜? 투표를 안 하는가?” 『의정연구』 24집.
- 김영태. 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참여와 선거경쟁도: 합리적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 발표 논문.
- 김영태. 2002.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독일·뉴질랜드·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제도 I』.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영태. 2001. “1인 2표제의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독일·뉴질랜드·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선거연구회 세미나(선거법 개정: 쟁점과 논의) 발표 논문.
-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김욱.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김욱. 2002.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향의 모색.”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욱. 2005.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서울: 집문당.
- 김재한. 1993. “투표참여의 함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9집 1호.
- 김종립·이남영. 1997. “투표자들은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의정연구』 3권 1호.

- 소순창. 1999. "한국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당파층의 실증 분석: 특징과 전망." 조중빈(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박명호. 2005.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 『세계 각국의 재보궐선거제도 이해와 투표율 제고방안』.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박찬욱. 1993.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선거전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선거학회보』 26집 3호, 153-74.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이남영. 2002. "선거과정에 대한 체계적 비교연구: 한국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푸른길.
- 이현우. 1999. "동시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이현우. 2004.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변화: 1987년과 2002년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3권 2호.
- 조기숙. 1996. "투표와 기권."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황아란. 1995. 『한국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9(제189권). 서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황아란. 1996.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0집 4호, 285-98.
- Aldrich, John H.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246-78.
- Cox, Gary W. 1988. "Closeness and Turnout: A Methodological Note." *Journal of Politics* 50, 768-778.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L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36.
- Fiorina, Morris P. 1976. "The Voting Decisi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Aspects." *Journal of Politics* 38, 390-415.
- Fiorina, Morris P. 1990. "Information and Rationality in Elections." John A. Ferejohn and James H. Kuklinski, eds., *Information and Democratic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iorina, Morris P. 1997. "Voting Behavior." Dennis C. Mueller, ed., *Perspectives on Public*

- Cho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Chong Lim.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ed Voting." Chong Lim K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Santa Barbara, CA: Clio Books.
-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Mueller, Dennis C. 1989. "The Paradox of Voting." In Dennis C. Mueller, *Public Choice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pkin, Samuel L. 1991.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and Henry Teune.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Malabar, Florida: Krieger.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3.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 Sniderman, Paul M., Richard A. Brody, and Philip E. Tetlock. 1991.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 Election Types and Voting Participation: With Focus on Local Elections

**Wook Him** | Paichai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 of elections as a macro-level variable affecting voting particip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study identifies three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as compared to the other types of elections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analyzes how these macro-level characteristics affect the micro-level relationships in voting participation.

First, the relative importance of mobilized voting (as opposed to voluntary voting) is likely to increase in local elections. That means that the micro variables such as age and the size of residence are expected to exert greater effects on voting participation in local elections.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e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variable of residence size, although it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voting participation in other types of elections, does show significant effects in a local election.

Second, given the extensive amount of information that is sought in local elections, it is expected that information short-cuts such as party and ideology would play a greater role in local elections. The empirical analysis does not confirm the expectations, however. The effects of the party identification variable on voting participation are constant across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suggesting that “party ID” is a valuable information short-cut regardless of the type of elections.

The effects of the political ideology variable are directly against our expectations. In contrast to our expectations, this variable has the least effect on voting participation in a local election, and the greatest in a Presidential election.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seems to be the

operation of another characteristic of local elections that we have failed to consider. Political ideology, although it usually becomes a central issue in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to a lesser extent) elections, tends to lose its importance in a local election, where everyday life politics is more emphasized than ideological confrontations.

**Key Words:** elections, voting participation, turnout rates, election types, local elections, Presidential elections, National Assembly elections, mobilized voting, information short-cuts, political parties, political ideology